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광염품(廣衍品) ②

人當有念意 인당유념의
每食知自少 매식지자소
則通欲薄 즉시통욕박
節消而保壽 절소이보수

사람은 마땅히 비추는 맘 있을지니
먹을 때 스스로 적을 줄 알면
이는 곧 욕망이 적어지는 것
쓰임새 절제하여 수명을 보전하라

學難捨罪難 학난사죄난
居在家亦難 거재가역난
舍止同利難 회지동리난
觀難無過有 간난무과유

배우기 어렵고 죄 버리기 어렵고
재가자 공부하기 또한 어렵고
모여살며 이익 같이 하기 어렵고
그 어려움 뭇 발고 태어나기만 못하다

比丘乞求難 비구걸구난
何可不自勉 하가불자면
精進得自然 정진득자연
後無放於人 후무욕어인

비구 구걸하기 어려우니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않을까
정진하면 자연히 얻어지리니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가까워진다
말해놓고 안했다고 하면
두가지 죄를 함께 받으니
제 몸을 스스로 이끌고 지옥으로 간다

法衣在其身 법의재기신
爲惡不自禁 위악불자금
苟沒惡行者 구물악행자
從別墮地獄 종달타지옥

법을 몸에 걸쳤다 해도
악을 지어 스스로 막지 못하고
오로지 악행에 몰두하는 자
끝내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無成受供養 무계수공양
理豈不自損 리기불자손
死墮燒鐵丸 사담소철환
然熱如火炭 연열극화탄

계행 없으면서 남의 공양 받으면
이치상 어찌 제 살갓기가 아니라
죽어서는 불에 달군 쇠구슬 먹게 되
나니
뜨겁기가 숯불덩이보다 더하다

放逸有四事 방일유사사
好犯人婦 호범타인부
臥除非福利 와침비복지
毀三寶失四 훼삼음일사

방탕有四사 방일유사사
호범타인부 호범타인부
臥除非福利 와침비복지
毀三寶失四 훼삼음일사

방탕에는 네가지 일이 있다
남의 부인 밧하기를 좋아하여
위험한 잠자리에 누우니 복리가 없
으며
남의 비방이 셋째, 음란에 빠지는게
넷째다

不福利惡惡 불복리악
良惡良藥寶 외악외약과
王法重罰加 왕법중벌가
身死入地獄 신사입지옥

복과 이익 아닌 것은 악에 떨어지니
악도 두렵고 즐거움 적으니 두렵다
나라법은 중벌을 가하고
몸 떨어지고 나면 지옥에 들어간다

譬如放管草 비여발관초
執繩刺傷手 집완축상수
學戒不持制 학계불금제
獄獄乃自賊 옥옥내자적

마치 악새를 뽑을 때에
느슨하게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계율을 배워 단속하지 않으면
지옥 장부에 제 이름 재가 올린다

龍眼

“사람은 마땅히 비추는 맘 있을지니 쓰임새 절제하여 수명을 보전하라”

그 다음엔 남에게 바랄것이 없다

有信則戒成 유신즉계성
從戒多致寶 종계다치보
亦從得諸福 역종득해우
在所見供養 재소견공양

믿을 있으면 계율은 잘로 성만하고
계를 따르면 많은 보배가 이르며
또한 그에따라 어진 벗 얻으니
가는 곳마다 공양을 받게된다

一坐一處臥 일좌일처와
一行無放恣 일행무방자
守一以正身 수일이정신
心樂居樹間 심락거수간

한번 앉거나 한번 눕거나
한결같이 행하여 방자함 없고
오직 한마음 지켜 몸 바르면
숲속에 머물며 마음 즐거우리라

지옥품(地獄品) ①

妄語地獄近 망어지옥근
作之言不作 작지언불작
二罪後俱受 이죄후구수
是行自牽往 시행자견왕

허위말을 하면 지옥에 가까워진다
말해놓고 안했다고 하면
두가지 죄를 함께 받으니
제 몸을 스스로 이끌고 지옥으로 간다

“미혹한 눈으로 세상보니

큰스님 수행한담

태 허스님 (본원종 종장)

어느날 일제선사(?~867)가 제자들에게
“붉은 몸통아리에 지워있는 참사람이
있어 너희들의 눈, 코, 귀, 입으로 늘 드
나드는바 아직도 이를 보지 못한 자는
나와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한스님이
나와서 “지워있는 참사람이란 무엇입니
까?”라고 되물자 선사는 법상에서 내려
와 제자의 먹살을 쥐고서는 “지워있는
참사람이라니, 그 무슨 통막대기냐?”고
일난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
니다.

통막대기라니...? 제자들은 “스승이 왜
통막대기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곧 화두가 된 거지요. 화
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계
속해서 내릴때 마당을 아무리 쓸어도 눈
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천막을 치고
쓸면 깨끗이 마당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와같이 화두를 드는 것은 주변에 천막을
치고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가 성실하게 살아있으면 속세의
업연과 현세의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 일
어나는 망상잡념이 차단됩니다. 차단이
계속되면 업장도 등달아 소멸됩니다. 업
이 소멸된 후에는 마음가운데에 화두인
통막대기 하나만 남게되는데 그 통막대
기마저 놓아버리면 비로소 지워있는 참
사람이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
를 모르는 채 무작정 외우듯이 화두를
들어보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
하지요.

또 화두는 제대로 된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삼세의 인연도리
는 알아야 해요. 예를 들면 전생에 뱀사
공이었던 사람에게 물과 관련된 화두
를 주면 좋을 것이고 대장장이였던 자에
게는 불이나 쇠와 관련된 화두를 주면
공부가 수월할 겁니다. 받는 사람의 근기
에 맞게 화두를 주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화두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
두 캄캄하니 화두가 살아있을 리가 있나
요?

비롯이 없는 거기에
갈도 또한 없음이다
가도 가도 한이 없는
그 생명에서
무엇이 새로 있으랴
남도 죽음도
그대로 나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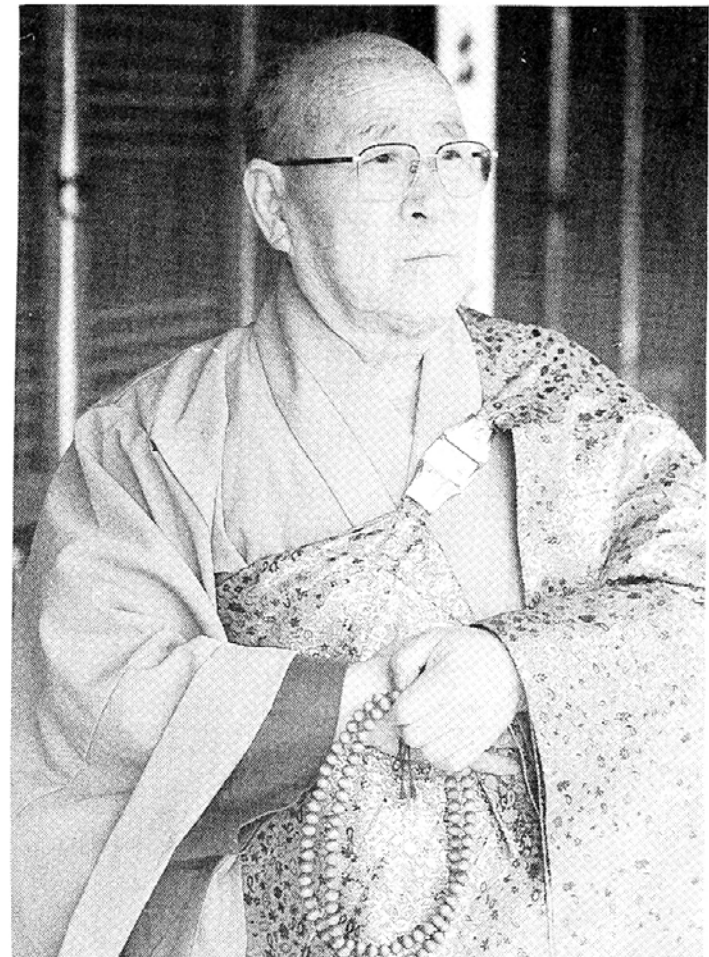
요즈음 참선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
분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은 산 귀신굴에 들어 앉아서 허송세월

만 보내는 격이니 업장만 잔뜩 키우는
것입니다. 말법시대라 중생들의 근기가
그런지 요즘 정토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미타불 정근은 정토삼부
경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근본으로 아미타불의 보원력을 추구하는
공부입니다. 가장 쉬운 공부라 할 수 있
습니다. 마음이 다른데 가 있더라도 오직
입으로 아미타불만 염송하면 되니 일자
무식인 자도 쉽게 들어올수 있는 큰 문
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
靜)에 끊임없이 염송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
때 의식적인 부분과 잠재의식적인 부분
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전에 보면 아미타불의 명호를 간절

- 1916년 경복 문경 생
1927년 문경 김용사에서 정경원
스님을 은사로 이화산스님을 계
사로 득도
1938년 김용사 경흥강원 대교과
졸업
1941년 해회전문학교 불교학과
졸업
1945년 문경 봉암사 주지
1950~58년 서약사, 부석사, 연방
사 주지
1970년 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1980년 총화종 총정 역할
1988년 대한불교 본원종 종장
취임
現 예천 연방사에 주석



화두든 염불이든 일념으로
자나깨나 그것을 놓지 않으면
생사일여의 길로 들어잡니다

하게 부르면 죽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에 왕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극락세계
라 함은 따로 존재하는 불국토를 말하
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현재당처에서 수
행을 통해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를 일컫
는 것이기도 하지요. 깨우치면 바로 그곳
이 극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여여하고 구족
한 것을 미혹한 눈으로 보니 괴로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염불정근은 근본자성
을 덮고 있는 망념의 먹구름을 조금씩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속세의
업장들을 조금씩 소멸시켜줍니다. 오래하

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신통력이 생겨
서 앞일이 내다보이기도 하니 중생들이
생활속의 수행으로 하면 좋습니다.

견성했다는 것은 자기의 성품을 본 것
으로써 본질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연대오
한 것과는 다릅니다. 견성이 성불은 아닙
니다. 본 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승가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결단 밀
평하지 끝내기 뿐인 스님들이 많습니
다. 부처님께서 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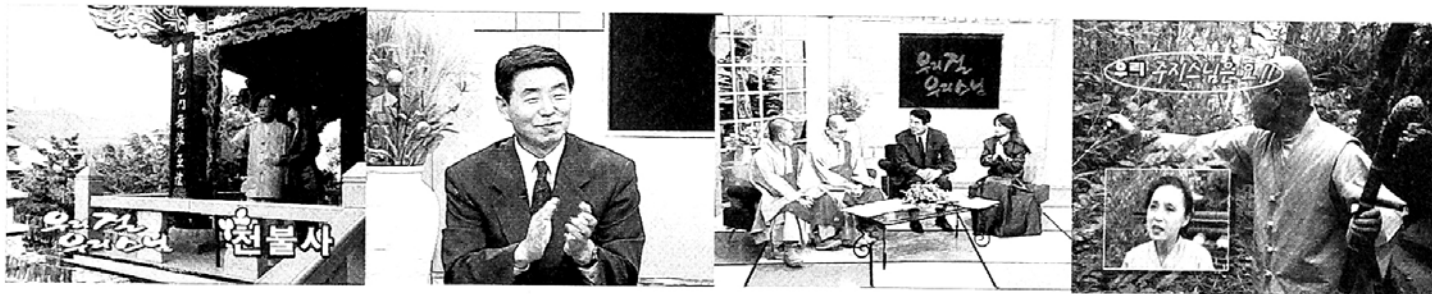
출가를 하셨습니까? 열반 잘 하기 위해
서 출가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
나는 병들고 늙고 죽을 수 밖에 없
는 것을 알고는 그 생로병사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고뇌하다가 출가의
길을 택한 겁니다.

부처님은 초발심을 끝까지 견지하며
정진해 오셨고 또 그 깨달음을 중생들
에게 고스란히 회향했습니다. 그런데 인
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굳은 초발
심으로 출가한 스님네들이 세월 지나면
초발심이 어디로 갔는지 흐트러지고 분
별망상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법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다 그런 것은 아
니지만 출가자들은 부처님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해요.

제대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드문 세상
입니다. 부처가 되기위해 머리를 깎았
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중도에 포기하
고 탈퇴해버리면 오히려 재가자로 있을
만 못합니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숙취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분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 10~10 00
13 25~14 15
22 00~22 50
매주 일요일
18 40~19 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인제박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는 너무 이끼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보세요.
기습속은 시원해지고 이끼는 으쓱해집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